

농촌 인력 문제 해결 맞손

익산시-중국 집안시, 업무협약 체결

익산시가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근로자들을 도입한다.

지난 31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의 전수와 지역의 농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집안시와 업무협약을 이날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익산시는 중국에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집안시는 인력을 제공해 상생을 도모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

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이 가능하게 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일정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 30세 부터 55세 사이의 중국 집안시 근로자가 확정되면 사증발급·입국 등의 절차를 거쳐 농업인력을 90일간 단기취업(C-4) 비자를 통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사업 희망농가에 대한 사전 수

요조사를 실시해 56개 농가 160여명의 수요 인력을 파악했다.

이 중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과 영농 규모 등을 검증해 오는 2월 15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확정하고 5월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희망 농가 배정인원은 영농규모별 1가구당 최대 4명이다.

외국인은 농번기에 90일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을 한 뒤 출국하며 재국입 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사업 희망농가는 농가와 근로자간

표준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한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작업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농가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관리반을 운영해 월 1회 이상 농가와 근로상황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익산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설 명절 맞이 풀무원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풀무원, 명절맞이 이웃사랑 실천

군산시 대야면·풀무원 이웃사랑 실천 귀감

설 명절을 맞이해 (주)풀무원(대표 이효율)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대야면에 따르면 지난 29일 관내 경로당과 저소득층을 위한 라면 100상자(3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야면 노인회 대표 유구수 회장은 "요즘 같이 군산경계가 어려운 시기에 아직도 경로당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분이 있다는 것이 대단히 반갑고 전달받은 라면으로 어른들에게 맛있는

별미를 제공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정귀영 대야면장은 "성품을 기탁해 주신 (주)풀무원에 깊은 감사드리며 다양한 기관과 연계·협력해 지역사회안전망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풀원은 '인간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로하스' 기업 이념 실천을 위해 바른 먹거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매년 대야면의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익산시, 봄철 산불예방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익산시는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봄철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에 대비해 산

림과 직원 전원이 2인 1조로 밤 8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 읍·면지역의 산불감시원과 전문진화대원 102명을 배치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방지 총력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오는 2월 1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산불방지 발대식을

개최한다.

발대식은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산불관계자 등 120명이 참석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의를 위해 마련된다. 시는 논·밭두렁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월 신청을 받아 마을별 산불취약지 논·밭두렁 태우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무인감시카메라 4대를 가동하고 주요 등산로에 감시원을 배치해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적은 강우량과 설 연휴 기간 중 맑고 건조한 날씨가 예상돼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산불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구도심 활성화사업

군산시가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80억원대의 상권 활성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단비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5년에 걸쳐 총 80억(국비 40억)원 상당의 지원을 받는 상권 활성화 사업을 2월초 공모한다고 밝혔다.

군산시,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군산시가 새해 들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업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청 상황실에서 강인준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장, 관과 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는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올해 추진목표,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

제점, 해결방안 중심으로 진행됐다.

신규사업 82건을 포함해 주요사업 124건과 일반사업 373건 등 총 495건을 대상으로 주요사업별 중심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보다 구체화된 목표설정을 통해 사업추진의 동력을 한층 강화하는 자리였다. 올해는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이란 시정목표를 보다 구체화해 '군산형 선순환

자립경제를 확립'하는 한 해로 ▲골목상권▲에너지자립 ▲떡거리순환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강인준 군산시장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나 군산경제 위기 악순환의 원인이 되었던 지역 구조를 탈바꿈하여 반드시 지역경제의 자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고용 산업위기 극복에 필요한정부 건의 요청사항 등을 적극 발굴하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PC영상회의 개최 스마트 행정 본격 가동

군산시는 저비용 고효율 스마트 행정체계 구축을 시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30일 이승복 부시장 주재로 27개 읍면동장과 현안 및 당면 업무를 공유하는 원격 PC영상회의를 실시했다.

그동안 대면으로 실시하던 읍면동장 회의의 PC영상회의로 대체해 회의실 설치 및 직원들의 시청이동 시간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했다.

이번 영상회의의 주요내용은 ▲읍면동 현장행정 강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설 연휴 민생 및 안전관리 대책 강구 ▲구제역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적극 추진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 활성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홍보 등이다.

군산시, PC영상회의 개최 스마트 행정 본격 가동

군산시는 저비용 고효율 스마트 행정체계 구축을 시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청 상황실에서 강인준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장, 관과 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는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올해 추진목표,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



군산시는 저비용 고효율 스마트 행정체계 구축을 시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회의에 참여한 읍면동장들은 간소한 절차와 효율적인 회의방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승복 부시장은 "앞으로 읍면동장과의 PC영상회의를 정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최일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모의 재난상황발생 대처회의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상회의를 활용해 부서 간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진

군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월 11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350대 폐차 목표하며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사업비 6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조건은 점수마감일 기준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군산시에 최근 2년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

실이 있는 차량은 제외되며, 정상운행 판정 차량으로 사고 등으로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대기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계(☎454-4463)로 직접 방문접수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대 사진 공모전 및 브랜드 명품 수상작 시상

군산대학교가 지난 31일 대학본부 총장 접견실에서 '사진 공모전' 및 '브랜드 명품이야기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사진공모전은 생활의 아름다운 정경 등을 담은 자료를 발굴해 이미지를 구축하고, 다양한 홍보용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브랜드 명품이야기 공모전은

군산대의 독특한 정체성을 구축하고, 친근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공모 기간을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7명으로 총상장과 함께 총 280만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1인 영상 콘텐츠, 사진, 대학 탐방 스토리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실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